2026.07.31

[국내주식 마감 시황]

이재원 Market Analyst | jaewon2.lee@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 sebin2.kim@yuantakorea.com

여명: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웠다

KOSPI 6,595pt(+17.9%), KOSDAQ 720pt (+11.6%)

① 해외 시황 AI Capex 공포 잠재운 빅테크 가이던스

- 전일 미국 주식시장 상승(S&P500 +1.7%, 나스닥 +2.8%,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8.2%). MS의 클라우드 매출 가이던스 상회 및 자본지출 추정치 하회로 AI 인프라 투자 부담 우려 완화되며 나스닥 6거래일 연속 하락에 마침표. 이에 소프트웨어 및 AI 전력·인프라 강세(MS +15.5%, 블룸에너지 +26.5%, 코어위브 +21.5%), 메타(-8.0%) Capex 하단 상승에도 불구 AI투자의 직관적인 회수 모델 부재 및 이익 감소로 약세. 장 마감 후 아마존 AWS 매출 +37%로 시간외 급등한 반면 애플 아이폰 매출 +21.7%에도 서비스 매출 컨센서스 하회하며 애프터마켓 하락. 공통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과소투자보다 AI 주도권 상실을 경계하는 모습. 이에 반도체 관련주 급등하며 지수 견인(NVDA +2.7%, 마이크론 +18.4%, AMD +13.0%, 샌디스크 +26.0%, AMAT +15.0%). 추가로 레오폴드 펀드 AI 인프라주 관련 과도한 레버리지 구성이 반도체주 약세로 강제 청산되며 오버행 물량이 해소

② 수급 Welcome back to Korea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8.3조, 외국인 +7.2조원, 기관 +1.1조원 순매수(투신 +1.7조원). 지수 급등에 외국인 순매수세 대거 유입. 기관 또한 순매수로 대응하며 코스피·코스닥 동반 매수 사이드카 발동

③ 특징업종 상한가로 답한 반도체

- 코스피 대형주 +19.1%, 중형주 +5.1%, 소형주 +4.3%. AIDC 관련주 급등하며 전업종 온기 확산. 1) 반도체: 모든 하이퍼스케일러 AI CapEx 상향함에 그간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를 크게 해소. 이에 반도체 대형주(삼성전자 +26.8%, SK하이닉스 29.9%), 지주사(SK스퀘어 +29.9%, 삼성생명 +18.0%), 소부장(주성엔지니어링 +26.7%, 원익IPS +27.9%) 급등. 추가로 전일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 장중 매수 공시가 시장 투자심리 전환 일조. 2) 전기•전력: 마이크로소프트 및 아마존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 인프라 확충을 명시, 관련주 강세(삼성전기 29.9%, LS ELECTRIC + 23.0%, HD현대일렉트릭 +19.3%, 효성중공업 +27.6%).

④ 이벤트 대형주 실적주간 마무리, 시선은 재차 매크로로

-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 예탁금 강화 시행일(7/31) 2) 한국 7월 수출입 동향(8/1) 3) 美 ISM 제조업 PMI(8/3 23:00) 4) 美 ISM 비제조업 PMI(8/5 23:00) 5) 美 고용보고서(8/7 21:30)

⑤ 시황 지독했던 수급 꼬임 풀린 코스피, 역대 일간 최대 상승률로 화답

- 금일 KOSPI, KOSDAQ 각각 +17.9%, +11.6% 급등하며 전 2거래일 급락분 대부분 되돌림. 장 초반 빅테크 호실적 및 우호적 가이던스 반영하며 양 지수 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후 급등폭 반납 없이 장 후반까지 상승폭 추가 확대. 삼성전자 +24%, SK하이닉스 +28%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폭등을 견인. 금일 KOSPI 상승률 +17.9%는 역대 일간 최대 상승률에 해당

- 금일 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Situational Awareness 청산 뉴스. 7월 초 450억달러까지 성장했던 AI 헤지펀드가 SK하이닉스 등 AI 인프라 롱과 소프트웨어 숏 양방향 손실에 마진콜 직면, 공개주식 포지션 전량을 시타델에 매각. 청산 완료는 곧 메모리·AI 인프라 종목에 대한 최대 레버리지 매도 압력의 소멸을 의미. 급락의 원인이 펀더멘털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이상, 되돌림의 속도가 빨랐던 것도 당연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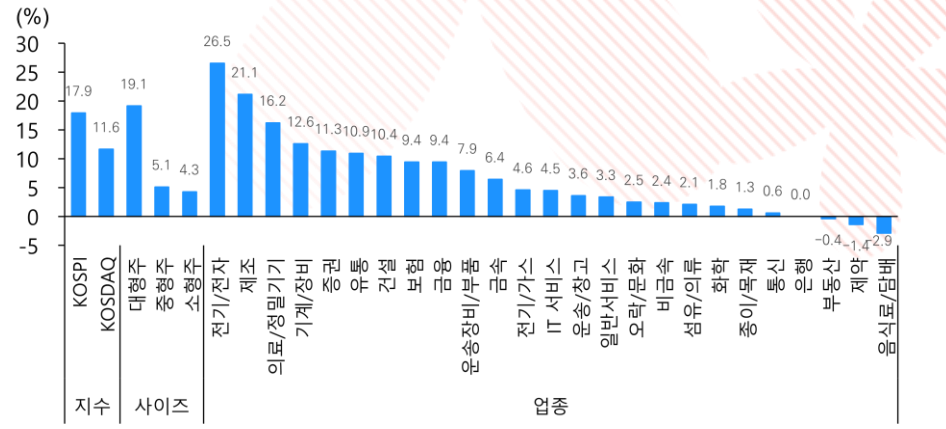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수급 역시 정상화 수순. KOSPI 현물 기준 개인 약 8조원 순매도 물량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소화. 급등에 차익 실현 나선 개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내는 구도. 금일부터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규제도 회전율 하락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 여전히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유가·중동 지정학 리스크는 잔존하는 상황이나, 낙폭 과대 호실적 주도주 중심의 대응 전략 유효하다는 판단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11,397	2,984
외국인	72,415	1,697
개인	-82,739	-4,712
거래대금	489,093	54,051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